

추상의 신화적 담론 ;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주하고 있다.

김노암(아트스페이스 휴 대표)

“그 때 나는 모두 비슷한 스타일과 색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획일적으로 조성되고 강요된 풍경으로 느껴졌다. 예쁘게 포장된 풍경이 장식적이며 허상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부정하기 보다는, 그 환경이 상실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 보면 어떨까.”

엄격한 이념으로서의 ‘추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정신과 정신, 개념과 개념, 시대와 시대가 서로 도약하며 충돌하고 간섭하던 총체적 사유와 통찰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모든 형상은 사건과 사건, 관계와 관계에 얽혀있어 단순하고 신성한 상징과 추상의 시대를 망각한지 오래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경험이 바뀌었다. 추상은 과거의 유물처럼 되어버렸다. 추상을 둘러싼 설왕설래는 어떤 고도의 정신적 경험과 공감을 끌어내고는 했다. 추상을 대상화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현상과 사물을 추상하는 것은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형상과 형상 사이 순간 명멸하는 어떤 얼룩이나 그늘과 같은 것이 되었다. 추상의 밖이 존재하였으나 더 이상 안과 밖이 나누지 않는 시대에 과거의 추상의 정신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래적 의미의 추상을 상실한 정신의 시대에 ‘추상’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녀가 고백하는 오랜 이주와 정주의 경험을 통해 항상 느껴왔던 괴리감은 사실 그리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은 경험이다. 그녀의 감정은 우리 모두 느끼는 이방인의 것이기 때문이다. 괴리감이란 꼭 알맞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불편하게 부유하는 일종의 공통감각 같은 것이다. 우리는 고립된 개인으로 세계와 사물을 만난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인간이 그 존재로서 깊이 각인하고 있는 본성이나 본질을 떨쳐버릴 정도의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인류의 문명, 정신 또는 개인과 예술은 과장된 허구일 지도 모른다. 인식적으로 추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나 예술에서 추상은 고질적인 난제이다. 추상하지 않고 세계와 존재를 사유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예술에서 추상은 예술의 본질이나 역할을 생각하게 한다. 예술은 본래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고 또 표상할 수 있는 지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추상은 답을 수 없는 것을 담으려는 시도이다. 답을 수 있는 그릇이 추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거 마치 그 그릇이 추상이라는 듯 이해하고 다루어 온 것도 사실이다. 추상은 단지 하나의 능력일 것이나 인간을 추상의 능력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버린 결정적 능력이기도 했다.

불과 5000년이 채 되지 않는 역사와 문명의 시대, 좀 더 멀리 잡아 10000년을 격하는 인류의 정신과 문화의 시대는 자연의 진화의 시간을 기준에 보면 인간의 본성이나 능력이 근본적으로 변할 정도의 오랜 시간은 아니다. 인간은 불과 얼마 전 수렵과 채집의 단계에서 살던 감각과 정신에서 멀리 나온 것이 아니다. 단순하고 본성적인 의식과 삶의 양식에서 얼마나 대단한 진화와 발전의 단계를 거쳐 왔는가. 아주 이질적이고 독특한 몇몇의 천재들의 정신과 업적이 인류의 문명과 정신세계를 단기간(자연의 역사에 비해)에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은 그 속도를 따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수렵시절의 정신력과 감각을 그대로 지닌 채 돌연변이들이 만든 문명과 문화 속에서 허우적댄다.

추상의 문제는 어쩌면 이런 문제일지도 모른다. 추상은 결코 대중과 다수의 정신이나 경험

을 다루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매우 예외적인 극소수의 인간들의 세계일지도 모른다. 모든 인간은 생김새는 유사할지 몰라도 그 감각이나 지력은 천차만별이다. 추상은 한 때 등장하여 사람들을 매혹시켰으나 그렇다고 해서 추상의 정신이나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걸까. 누구는 추상을 정신이라고 했고 누구는 감정이라고 했으며 또 누구는 표현이라고도 했다.

‘추상’이란 모방과 표상의 인간이 다루기에는 난감한 발명품일지도 모른다. 이 연금술적 비의를 떠올리게 하는 추상의 이미지는 결코 작품의 재료적 물질적 분석이나 작가의 작업노트나 고해성사에 의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작가나 관객이 자력으로 밝혀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야하는 문제인 것이다. 긴 시간의 접촉과 준비와 기다림 속에 무언가 강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의 ‘추상’은 요즘의 세태나 세대의 감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도 추상의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기 어려운 상실의 시대라는 감각적이며 통속적인 표현으로만 가능할지 모른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정주자의 문화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짧고 유행 같은 시간일 것이다.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과 감각들이 혼돈하며 마치 수증기와 같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시간 말이다.